



Read the full book on: [10.1787/agr\\_outlook-2017-en](https://doi.org/10.1787/agr_outlook-2017-en)

## 2017-2026 년 OECD-FAO 농업 전망

### 한국어 개요

「2017-2026 년 농업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의 협력과 회원국 정부 전문가 및 원자재 전문기관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이다. 본 전망은 국가적, 지역적 및 글로벌적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의 중기(10년)적 전망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올해의 발간호에는 동남아시아의 농수산 부문에 특별히 중점을 둔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의 전망에서는 2016 년도에 농수산 품목 대부분의 사상 최대 생산량 및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에 정점을 이루었던 가격대보다 크게 낮게 유지된다는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6년에 곡물류, 육류 및 낙농제품의 평균 가격은 계속 하락한 반면에, 채유종실유, 식물성 기름 및 설탕은 경미한 반등을 보였다.

본 전망의 대상 기간 동안에는 수요 증가가 현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첫 번째는 육류와 어류의 수요가 증가로 인해 매년 거의 6% 식량 소비가 늘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이었으며, 두 번째는 공급원료의 사용이 매년 거의 8%가 늘어난 글로벌 바이오연료 부문의 성장이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곡물 재고량이 2.3억톤이 소진된 것도 역시 수요 증가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동인들이 중기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동인들도 보이지 않는다.

본 전망에서 다루는 실질적으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식량 수요의 증가는 이전 10년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적으로 곡물류에 대한 1인당 식량 수요는 거의 편평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지 저개발국가에서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호 식단의 변화, 저임금, 공급측면의 제약이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많은 국가들의 최근 추이로 인해 육류 소비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칼로리와 단백질은 주로 식물성 기름, 설탕, 낙농제품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서구적 식단으로의 “통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까지 1인당 1일 평균 칼로리 가용성은 저개발국가에서는 2,450 kcal에 도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3,000 kcal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식량 불안정성은 여전히 글로벌 핵심적 우려사안이며,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가 병존하는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 증가는 화석연료 가격하락과 바이오연료 인센티브 정부정책의 감소로 인해 약화되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공급원료(에탄올을 위한 옥수수나 사탕수수, 바이오디젤을 위한 식물성 기름)에서 비롯된 수요의 증가는 둔화될 것이다. 단 바이오연료에 보다 적극적인 국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 생산의 향후 증가는 대부분 수확량 증가에서 비롯될 것이다. 수확량 증가는 경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대한 수확량 간극이 좁혀짐에 따라 산출량은 증가될 수도 있다. 글로벌 곡물류 경작면적은 미미하게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대두 경작면적은 가축 사료와 식물성 기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와 낙농제품의 증가는 축산동물 수의 확대 및 동물당 산출량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될 것이지만, 생산집약도의 커다란 차이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가금류 생산의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총

육류생산 확대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유 생산의 증가는 지난 10 년과 비교하여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 부문에서는 어획생산은 현재의 재고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남획을 제한하는 정책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양식업 성장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어류생산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양식 어류생산은 본 전망에서 다른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단백질 공급원이다.

농수산물 교역의 증가는 지난 10 년 동안의 증가율의 절반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10 년 동안에 농수산물 부문의 산출량에서 교역은 대략 변함없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업 교역은 다른 상품의 교역보다 거시경제적 변동에 더욱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농산물 부문에서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농업교역의 증가는 추가적인 시장 자유화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 수입의 중요성이 식량 안보에 있어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 아프리카, 중동에서 그러하다. 식량 수입의 중요성 증가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국내적으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에는 자연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심이 필요한 농업개발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

미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수산물의 순 수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순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소수의 공급국가로 집중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수입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사실은 수요 충격 보다는 자연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된 공급 충격에 세계시장이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전망에서 예상하는 근본적 수요/공급 조건 하에서, 농수산물 대부분의 실질 가격은 경미한 하향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10 년 동안에는 이전의 최고 가격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농산물의 가격은 현저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며, 상당 기간 동안에 장기적 추이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다.

## 동남아시아

본 전망의 특별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농어업 부문이 급속하게 발전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성장(broad based growth)은 이 지역에서 최근년 동안에 영양부족의 문제를 현저하고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농업과 어업의 성장은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으며, 수출지향적인 어업 및 팜유 부문에 특히 영향을 주었다. 본 전망에서는 주요 팜유 생산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둘 때 따라 팜유 생산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속가능한 생산성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 개선 및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쌀 생산 지원정책도 농업 다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조정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7),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OECD Publishing.

doi: 10.1787/agr\_outlook-2017-en